

#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empowermen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Jeoung-Cheoul Heo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 연구이다. K시 소재 4년제 여자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30명과 통제집단 30명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 가운데 개인내적,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 가운데 정보수집활동, 실천행동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사회적자본,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여대생, 임파워먼트,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vergence stud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that a recovery program for social capital has on empowermen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y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female college students located in K city, and Experimental Group 30, Control Group 30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data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ly-internal, political and social areas in the sub-areas of empowerment in female college student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 relationships. Also, in the sub-area of career preparation activity in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recovery program for social capit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and practice activity were different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recovery programs for social capital for improved empower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usability.

• **Key Words** :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Female college student, empowerment, Career preparation activity

\*Corresponding Author : 허정철(jcheo@kwu.ac.kr)

Received October 27, 2016

Accepted December 20, 2016

Revised November 2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신뢰, 의무감, 소속감, 애정 등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개인에게 축적되는 자본이다. Putnam[1, 2]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3].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s)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데 있다[4]. 사회적 연계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력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 책임지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성취도, 진로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5, 6, 7, 8]. 또한 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하였다[9]. 최은진·육혜련[10]은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내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생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돕고자 하였다. 사회적자본을 활용해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향상 시키고자 했던 연구[11, 12, 13]와 한부모 여성의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14], 사회적자본과 농어촌 지역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15], 노인자원봉사활동 수준이 사회적자본의 융복합 형성에 미치는 연구[16] 등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한국의 대학생은 자신의 장래 직업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7]. 대학생이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하기 보다

는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고려하여 장래를 계획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여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좀더 현실적으로 진로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자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회적자본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8], 대학생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7]들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19-23], 사회적자본인 부모님이 대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있었다[24, 25].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의 부모의 사회적자본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와 인적·물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들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둘째,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대생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이 가진 자본 중 인적·물적 자본과는 달리 인간관계의 다양한 연결로 인해 유형·무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 친지, 지역사회의 관계 등 혈연, 지연, 학연이 사회적 자본 생성의 형성 바탕이 된다[10]. Coleman[26, 27]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간의 관계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으로 행위자의 이익실현

행동을 촉진시키는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연계망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데 있다[4]. 사회적 연계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력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Putnam[1]은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지지, 정보 및 물적 교환 과 같이 인간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규범, 기대,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8].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에 의하여 발생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복합적인 관계의 자본으로 각종 집단, 학교, 가족, 특정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Putnam[1]의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자본을 개인간의 네트워크, 참여, 신뢰를 통해 축적된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 2.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파워를 키워 내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모든 활동, 즉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29]. 임파워먼트를 개인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길러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30]. 청소년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자원과 권력의 획득을 통해서 자신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 자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집단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의식함양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문제해결과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즉 임파워먼트는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31].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임파워먼트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구성한다.

##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32]. 즉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을 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33]. 또한 Philips & PaziENZA[34]는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의 행동과 실천의 행동으로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진로준비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조성삼·주석진[35]은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 목표나 진로결정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행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에 대한 정보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과 자신이 목표로 한 진로 및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는 준비행동으로 정의한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는 탐색행동, 준비행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 2.4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권연주[11]는 청소년참여활동 및 조직 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인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해서 참여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정치사회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광미정·문신용[12]은 사회적 자본으로 가정내에서의 시간공유 및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개인내적 측면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도움을 줄 수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유대감 정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사회·정치적인 측면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궁은숙·신영화[13]는 사회적 자본인 가족지지가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및 전체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지지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 또한 학교환경요인으로 설정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도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및 전체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인숙[14]은 사회적 자본이 한부모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물적자본과 인적자본과 같이 유무형의 혜택을 통해 사회적 생산

성을 가져오는 자본의 형태로 기능함으로써 한부모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증대시킴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 2.5 사회적 자본과 진로준비행동

박부옥[24]은 가정의 사회적 자본인 부의 학력, 부의 직업 등이 대학생의 미래에 갖고자 하는 직업획득전략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 생활정도, 성적이 낮을수록 대학생의 직업획득전략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심경섭[1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직업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에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심경섭·설동훈[17]은 사회적 자본의 주요 기능이 정보 취득인데,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취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장래 취업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김현주·김준영[36]은 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가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 3.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Table 1> 과 같이 11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한 회기당 120분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관계형성단계, 목표설정 단계, 진행동태색단계, 목표행동화, 종결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Table 1>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section	session	program	activity contents	expected effect
relationship formation	1	mentor-mentee forming a connection	the goal of the program and process introduction rapo forming(self-introduction pre-test)	confidence formation
	2	codeungsan climb	mentor-mentee climb	
goal establishment	3	now necessary a thing	fields of interests research, understanding of work world	basic needs understanding serach for resources
	4		senior invitation special lecture	
	5		social welfare visiting agencies	
search behavior	6	my strenths?	search for my strenths	strong point development
	7	visiting agencies interview	interested institutions interview	research on fields of interests
goal behavior	8	I'm star! activity evaluation	Career Preparation Activity check, setback and feasibility cognition	Career Preparation
	9	진로계획 및 생애 설계	make a career plan, write a resume	career plan
	10	volunteer work experience	volunteer work experience divide	volunteer work
end/evaluation	11	evaluation conference	post-test, measurement of the effectiveness, compliment and share the experience	measurement of the effectiveness

### 3.3 실험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은 실험집단에게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서 점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와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기간(3월7일~5월23일)동안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한을 하였으며,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매주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sign

group	pre-test	progress on the program	post-test
experimental group	O <sub>1</sub>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x)	O <sub>2</sub>
control group	O <sub>3</sub>		O <sub>4</sub>

### 3.4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2015년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K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집단은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 중 3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중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30명을 선정한 후 총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5 연구 도구

#### 3.5.1 임파워먼트 측정 도구

대학생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김희성[37]이 개발한 임파워먼트 척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 척도에는 개인내적(21문항), 대인관계(26문항), 정치사회적(11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onent Question Number of Empowerment Scale (\* : Inverse Question Number)

division factor	items	question number	pre (α)	post (α)
personality-internal	21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818	.869
personal relationship	26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817	.846
political and social	11	1,2,3,4*,5*,6,7,8*,9,10,11*	.887	.831
total	58			

#### 3.5.2 진로준비행동 측정 도구

김봉환[25]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 척도에는 정보수집활동(12문항), 실천행동(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onent Question Number of Career Preparation Activity Scale

division factor	items	question number	pre (α)	post (α)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12	1,2,3,4,6,7,8,9,10,11,12,14	.801	.790
practice activity	5	5,13,15,16,17	.748	.735
total	17			

### 3.6 자료 분석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이 얼마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임파워먼트 및 진로준비행동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파워먼트 및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사전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임파워먼트 및 진로준비행동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 4.1.1 임파워먼트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임파워먼트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Empowerment Pretest Comparison

empowerment	group (N=30)	M	SD	t	p
personality-internal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3.2331 3.1587	.4232 .4012	.653	.301
personal relationshi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3.7287 3.8032	.3521 .3712	-.571	.516
political and social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2.9043 2.8815	.2718 .3466	.713	.253

p < .05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파워먼트 전 하위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임파워먼트에서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었다.

#### 4.1.2 진로준비행동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준비행동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Career Preparation Activity Pretest Comparison

career preparation activity	group (N=30)	M	SD	t	p
information collection	experimental group	2.5833	.4762	-.796	.214
	control group	2.7135	.5682		
practice activity	experimental group	2.5579	.6344	.894	.117
	control group	2.4159	.7102		

$p < .05$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진로준비행동에서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 4.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 4.2.1 임파워먼트 사전·사후검사 비교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임파워먼트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Empowerment Pretest-Posttest Comparison

empowerment	group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personality-internal	experimental	3.2331	.4232	3.5464	.4248	-6.671	.000
	control	3.1587	.4012	3.2016	.6013		
personal relationship	experimental	3.7287	.3521	3.8259	.2994	-1.555	.137
	control	3.8032	.3712	3.8741	.4157		
political and social	experimental	2.9043	.2718	3.2153	.2813	-4.760	.000
	control	2.8815	.3466	2.7583	.3615		

$p < .05$

위 <Table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임파워먼트하위 영역 가운데 개인내적,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영

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나의 강점 찾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김으로 개인내적인 임파워먼트가 향상되었다. 특히, 강점찾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양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잘 하는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봉사활동 경험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2 진로준비행동 사전·사후검사 비교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준비행동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Career Preparation Activity Pretest-Posttest Comparison

career preparation activity	group	Pre test		Post test		t	p
		M	SD	M	SD		
information collection	experimental	2.5833	.4762	3.3289	.4161	-10.841	.000
	control	2.7135	.5682	2.7365	.6145		
practice activity	experimental	2.5579	.6344	3.3053	.5093	-5.214	.000
	control	2.4159	.7102	2.3986	.5154		

$p < .05$

위 <Table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준비행동하위영역 가운데 정보수집활동, 실천행동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직업의 세계 이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과 관심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정보수집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배초청 특강’ 및 ‘기관장초청 특강’을 통해서 현장의 경험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정보수집 활동에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한편,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기관방문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의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그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기술, 경험 등을 알게 되어서 진로를 실천적으로 준비하는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행동을 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 및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5. 논의 및 결론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가운데 개인내적,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나의 강점’ 찾기를 통해서 여대생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강점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과 개인내적인 임파워먼트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봉사활동 경험나누기’를 통해서 소외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인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해서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보다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권연주[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이 사회적 자본인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인 가족지지, 학교 환경에서의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같은 주변 주요한 사

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개인내적,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던 남궁은숙·신영화[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점찾기’ 활동을 통해서 교수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됨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자신의 잠재능력, 가능성, 재능, 강점을 발견하는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 구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앞으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대한 강점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강점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가운데 정보수집활동, 실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직업의 세계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방문인터뷰’를 통해서 방문한 기관에서 하는 일들과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기술, 경험 등을 직접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선배초청 특강’ 및 ‘기관장초청 특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로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진로목표를 세우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으로 지역사회의 기관 및 시설을 활용하고, 전문가와 졸업한 선배들을 활용을 할 때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주변의 사회적자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얻는 것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심경섭·설동훈[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경험이 학생들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주·김준영[3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직업의 세계이해’라는 시간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위해 ‘직업의 세계 이해’와 같은 진로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진로준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들에게 임파워먼트 및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자본들을 찾아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대학에서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실제적으로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와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들을 활용할 때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와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윈(win)-윈(win) 체계를 구축해 나갈 때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REFERENCES

- [1] R. D. Putnam,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65-77, 1995.
- [2]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3] R. D. Putnam,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Politics*, 27(4), pp.64-83, 1993.
- [4] J. Field,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ROUTLEDGE, p.12, 2003.
- [5] K. O. Choi, "The Influence of Community Social Capital on the Social Competence of the Youth", Sungkonghoe University Doctorial's Thesis, 2015.
- [6] R. J. Kim,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on Middle School Student's Adjustment in School Life",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7] J. Y. Won,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9, pp.125-150, October 2009.
- [8] H. J. Kim, J. Y. Kim, "The relationship among The youth career transition and human capital of the youth, human and social capital of the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2, No. 2, pp.23-52, 2010.
- [9] J. C. Heo,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Career Identity and Empowerment of Adolescents on Prob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9, pp.157-166, September 2015.
- [10] E. J. Choi, H. R. Yuk, "The effects of the recovery program of the social capital on the empowerment and the social support improvement of juvenile delinquents-For clinic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3, pp.1-22, September 2011.
- [11] Y. J. Kwon, "A Study on Youth Empowerment



- through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University of Seoul Master’s Thesis, 2007
- [12] M. J. Kwak, S. Y. Moon, “A study on Ec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Empowerment on Youths. -Focused on family Life satisfac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tim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3, pp.215-246, March 2011.
- [13] Y. H. Shin, E. S. Namgoong, “The Factors Affecting Empowerment of Adolescents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s of Jeonbuk Provinc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34, pp.30-61, March 2011.
- [14] I. S. Lee, “The Effec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Factors and Social Capital on Empowerment of Single Mother”, Social Welfare Studies, Vol.43, No.2, pp.207-233, June 2012.
- [15] H. J. Jang, G. Y. Noh, “Structural Model of health status in Rural Community. Social Trust, Medical Commun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483-493, 2015.
- [16] J. Y. Han, W. K. Lim,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n the Social Capital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39-53, 2015.
- [17] K. S. Shim, D. H. Seol, “Occupational Aspira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3, No.2, pp.33-59, August 2010.
- [18] Y. S. Kim, S. 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the Disabled on Their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Disability and Employment, Vol.22, No.1, pp.55-86, February 2012.
- [19] I. H. Jung, B. C.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 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20] S. J. Lee, Y. J.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 [21] K. Y. Ji, J. Y. Han,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33-41, 2016.
- [22] S. H. Kim, M. J. Kim,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407-418, 2016.
- [23] D. S. Park,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15-423, 2014.
- [24] B. O. Park, “Influence of Student’s Gender and Social Capital of Family on Decision Making of Care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5] K. S. Shim, “Social Capital and Status Attainment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26]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1988.
- [27] J. S. Coleman,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28] V. E. Lee, and R. G. Croninger,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case of education. ED 412 629, 1996.
- [29] J. M. Jun, “A study on empower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comparison between cases of multicultural and regular households”,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ial’s Thesis, 2010.
- [30] S. H. Moon, “The Effects of the Empowerment Program for Improvi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Jeon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1] Y. J. Bae, "A Study on The Empowerment and Rights-Advocacy act of Youth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2]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ial's Thesis, 1997.
- [33]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Hongik University Doctorial's Thesis, 2004
- [34] S. D. Philips, & N. J. Paziienza,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pp.1-31, 1988.
- [35] S. S. Cho, S. J. Ju, "Study on the Analysis of Effects of Experience Activity-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 47-64, September 2010.
- [36] H. J. Kim, J. Y. Kim, "The relationship among The youth career transition and human capital of the youth, human and social capital of the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2, No.2, pp.23-52, June 2010.
- [37] H. S. Kim, "A Study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 Analyzing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Ewha Women's University Doctorial's Thesis, 2002.

저자소개

허 정 철(Jeoung-Cheoul Heo)

[정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